

광주·전남북 올 '최악 황사'

오늘까지 지속... 노약자·호흡기 질환자 외출 삼가야

1일 을 들어 최악의 황사가 한반도에 상륙해 전국이 모래바람에 휩싸였다. 황사주의보가 발령된 광주와 전남·북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치솟아 아외활동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황사는 2일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외출시 주의가 요구된다.

1일 광주지방기상청과 전주기상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5분께 광주 미세먼지 농도가 최대 $605\mu\text{g}/\text{m}^3$ 까지 높아졌으며, 전주는 $573\mu\text{g}/\text{m}^3$ (낮 12시50분), 흑산도 $459\mu\text{g}/\text{m}^3$ (오전 9시 44분), 군산 $456\mu\text{g}/\text{m}^3$ (오전 11시30분), 진도 $432\mu\text{g}/\text{m}^3$ (오전 8시50분)를 나타내며 들어 최악의 황사를 기록했다. 중국 내몽골 지역에서 발생한 황사가 강한 기류를 타고 한반도에 지속적으로 유입될 것으로 보여 주의 보가 경보로 격상될 가능성도 있다고 기상청은 내다봤다. 기상청은 황사는

2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노약자나 호흡기 질환자는 외출을 삼가고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지난 30일에는 광주와 전남·북 지역에 강한 바람으로 피해

도 했다.

지난 30일 오후 4시께 광주시 북구 신안동 한 도로에서 강풍으로 떨어진 간판에 김모(60)씨가 머리를 다치는 사고가 발생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지난 29일 밤 11시40분께 광주시 서구 금호동 한 원룸 인근 도로에서 대형 가로수 가지가 강풍으로 부러져 도로를 가로막으면서 운전자들이 큰 불편을 겪는 등 이를 사이 강풍 관련 피해신고가 29건 접수됐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25층용 사다리차 벌리덩

지난 29일 오전 8시10분께 광주시 북구 중흥동 한 건물 앞에서 25층용 사다리 차가 도로를 가로질러 쓰러져 건너편 건물까지 파손됐다. /연합뉴스

도교육청, 사무관 승진 '심사제'로 변경

개첨 아래 처음... 공개검증·평가거쳐 임용

전남도교육청이 개첨 아래 지속해온 사무관 승진 임용방법을 시험제에서 심사제로 바꾼다.

전남도교육청은 1일 시험준비에 따른 행정 공백 초래, 격무부서, 핵심·주요 보직 기회 등의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시험제를 심사제로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남교육청이 승진방법을 변경한 것은 1964년 3월 개첨 이후 처음이다. 인사관리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년부터 적용되며 올해까지는 시험제가 그대로 유지된다.

심사제는 근무경력 등을 바탕으로 정리된 승진후보자를 홈페이지에 공개한 후 공개검증과 역량평가, 다면 평가 등을 거쳐 최종 승진후보자를 결정한다. 승진후보 대상자는 내부 검증을 거쳐 1차 부적격자를 탈락시킨 후 기획, 분석, 리더십, 자질 등 역량평가를 거치고 다시 선후배와 동료 등의 다면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근무평정(근평)은 30%에 불과하며 역량평가와 동료, 선후배의 다면 평가가 각각 30%와 20%를 차지한다. /윤영기자 penfoot@

광주·전남 중등교사 295명 선발

올해 세로 선발할 광주지역 중등교사수가 170명으로 지난해보다 14% 가량 증가한 데 비해 전남은 지난해 수준인 12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임용규모는 작년보다 93명 많은 2491명으로 잡정 결정됐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중등교사 신규 임용전형 시도공동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12학년도 중등임용시험 선발규모(비교과, 특수교사 제외)'를 1일 사전 예고했다.

올해 전체 중등교사 임용 예정인원은 2011학년도 임용인원인 2398명보다 93명 증가한 2491명이며, 과목수는 28개 과목에서 32개 과목으로 4개 늘었다. 광주의 임용 예정인원은 지난해보다 14% 증가한 170명, 전남은

지난해와 비슷한 125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별 임용 예정인원은 경기가 632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 307명, 충북 195명, 경남 177명, 충남 174명, 경북 120명, 대구 112명, 인천 97명, 전북 91명, 대전·강원 각 71명, 울산 63명, 부산 61명, 제주 25명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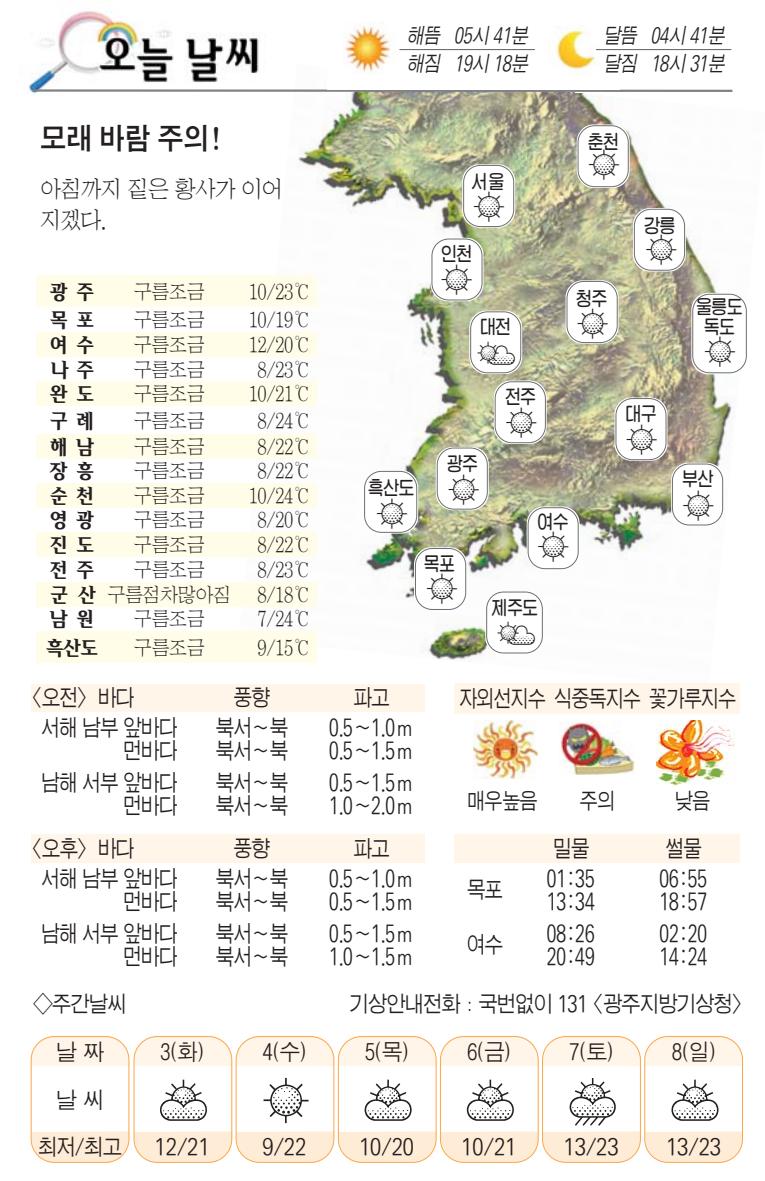
광주의 과목별 채용인원은 국어 27명·도덕 3명·일반사회 3명·지리 3명·수학 34명·물리 6명·화학 6명·생물 5명·지학 5명·체육 14명·음악 4명·미술 6명·기술 2명·가정 2명·영어 27명·일본어 3명·중국어 5명·한문 3명·식물자원 2명·건설 3명·기계 4명이다.

전남은 지난해 임용이 없었던 농업·공업 등 과목의 신규채용을 포함한 임용 예정인원을 2일 공개할 방침이다.

교육청별 전국 임용 예정인원은 영어 527명·수학 386명·국어 327명·생물 129명·체육 126명·화학 107명·미술 106명·지구과학 98명·물리 93명·음악 92명·역사 83명·중국어 54명 등이다. 도덕유리(49명), 일반사회(36명), 지리(32명), 기술(25명), 일본어(22명), 한문(18명), 공통사회(5명), 공통과학(5명) 등은 임용 예정인원이 50명 이내였다.

이번 사전예고는 교과부가 지난달 31일 올해부터 중등시험은 시험 6개월 전에 개략적인 선발과목과 규모를 예고하는 사전예고제를 도입하면서 방침을 밝힌 데 따라 처음 시행된 것이다. 지금까지는 교사 채용 규모가 시험 20일 전에야 공고됐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국립공원의 야생화

그늘진 숲에서 쉽게 발견되는 두해살이풀

(9) 자주괴불주머니



자주괴불주머니는 약 50cm로 자라는 두해살이풀로 산이나 들의 그늘진 숲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괴불이란 오래된 연(蓮)뿌리에 서식하는 열매로 귀신을 물리치는 벽사를 의미하고 있어, 옛날 사람들은 오색의 비단 행장을 이용하여 여러 모양의 수를 놓아 만든 노리개인 괴불주머니를 주며

나끈 끝에 차고 닦았다.
그 주머니와 닮은 형태로 자주색 꽃을 피운다하여 자주괴불주머니라고 이를 불여졌다.

〈박성배 내장산국립공원 백암사무소 과장〉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SINCE 1982

* 매우 잘 들픁니다. * 안보입니다. * 가격이 맘에 듭니다.

국제보청기

www.kjhr.com

[국제보청기]
서울 종로점 4월 5일 개점하였습니다!

본점 062-227-9940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81-1(이현안과 옆)
충장점 062-227-9970

순천점 061-752-9940
전라남도 순천시 영동 32-5 (중앙시장 앞)
목포점 061-262-9200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프리모 남녀가발

가발

초슬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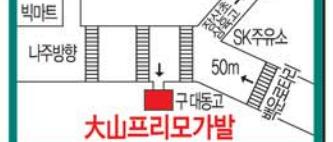
스킬과 망이 초극대화하여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며 이질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가격 파괴 50~만원

귀하의 품위와 인격을 높혀주는 영원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화상 두피함몰등 가발의 모든 것 해결함
타사 제품도 신기술로 보완시술 가능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리인기든상가 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재 011-607-5330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봇이나 틀라로 직접 칠해주세요”



ENG, 이엔지 방수, 바닥재 전문생산업체
이엔지 미화 방수주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